

선릉이용한조형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예학과

남수진

2016

순서

머리글

1. 연구배경

2. 연구표

몸글

1. 표현방법

우레아수지

직선미술

광학미술

2. 참고작가

Victor Vasarely

Naum Gabo

3. 연구작업

작업 1

작업 2

작업 3

작업 4

맺으기



1. 연구배경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작은 원자인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이 모여 면을 만든다. 면이 모여 입체를 만든다. 또한 칸딘스키는 모든 조형의 시작은 점, 선, 면이라고 말했다. 점에서 시작되는 선과 면이 나에게 흥미로운 요소로 다가왔다. 모든 직선으로 연결하면서 그 선을 표현할 수 있고 면이 만들어지는 점을 이용하고 싶었다. 무수히 많은 선들이 겹쳐지면서 깊이감과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 또한 흥미롭게 다가왔다.

2. 연구방법

많은 선들이 겹쳐져 보여지는 느낌을 활용하여 깊이감과 움직임은 두한 착시를 재미있게 표현해볼 계획이다. 겹쳐지는 선으로 면으로 보이게 하는 것처럼 기본 바탕을 선에 대입하여 물리적으로 관찰자가 움직이며 색을 한층 본다. 이러한 착시 효과를 통해 작품과 사람 사이에 움직임이 나타낼 수 있는 작업을 표현하고자 한다.



1. 표현방법

우레아수지

우레아 수지는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아민 많다 수지 호 화합물의 화학 반응으로 형성된 탄성체이다. 내마모성, 질착력, 인장강도가 우수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고 연수부 무시형,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유성과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수지와 다르게 수분 흡수성이 매우 낮고 내수성이 강하며 열안정성이 뛰어나다. 목에 해롭고 갈변이 빠른 수지와 다르게 우레아 수지는 환경친화 제품으로 변색이 없다.

진선미소

진선미소는 수학 원리로도 쓰이며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면서 어떠한 면을 만들거나 일정하게 연결하여 수많은 직선들로 구성된 면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점다면체 또는 위에 일정하게 진행한다면 직선들이 모여 반보름 이루어 도톰하고 치밀한 형태를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의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 두 점이라는 고정점이 필요하며 선들을 통해 면을 만들고자 한다면 수많은 고정점이 필요하다. 그 점들은 심세하게 연결된 선들의 시각적 요소를 방해한다. 보완하기 위해 연결한 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광함미소

광함미소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미묘한 색채관계, 원근법을 이용하여 사람의 눈에 착시를 일으켜 시각상의 효과를 추구한다. 빛, 색, 형태를 통해 평면적인 그림이 아닌 역동적인 입체를 보여준다. 내 작업에서는 선으로 만들어진 면을 걸쳐 도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움직이면서 작품을 보지만 그림이 움직인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2. 창고작가

Victor Vasar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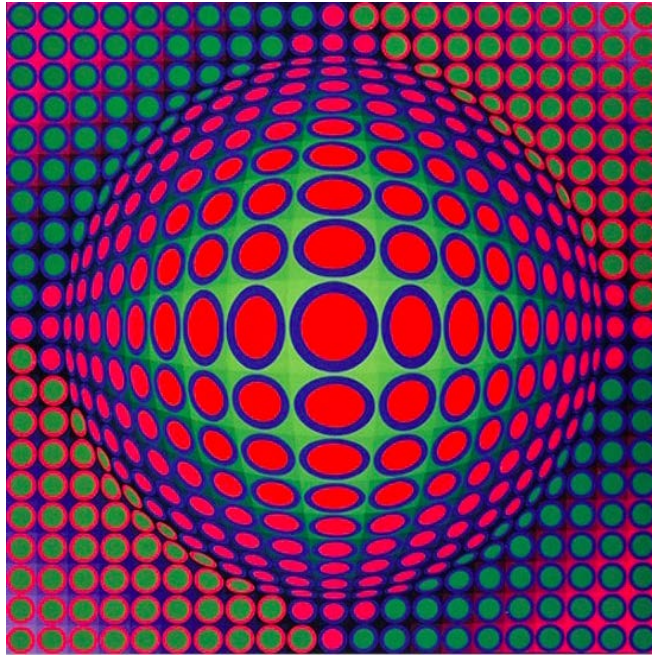


그림 1) 베가-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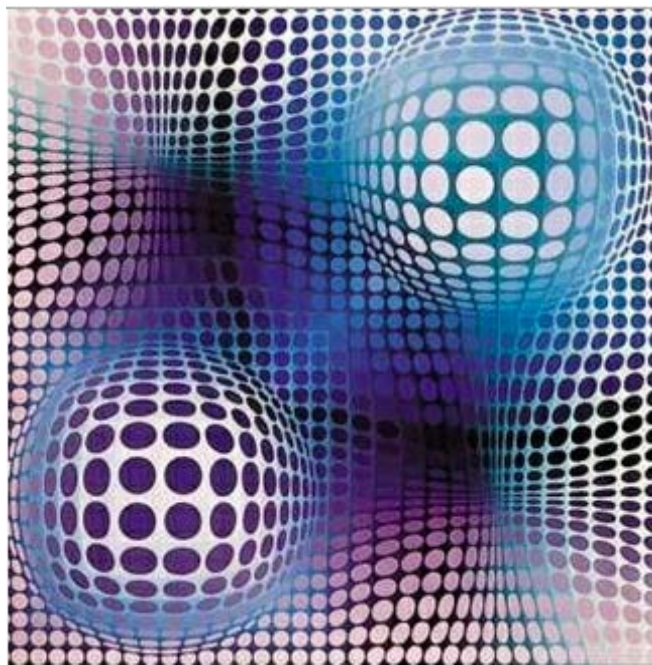


그림 2) Feny

광학미술의 발전을 기여한 사람으로 기하학적 형태와 그에 상호하는 색기 넘치는 색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의 도상적인 형태로 표현한다. 그는 더 밝고, 더 역동적인 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인 환각을 통한 움직임의 형태를 표현한다.

Наум Габ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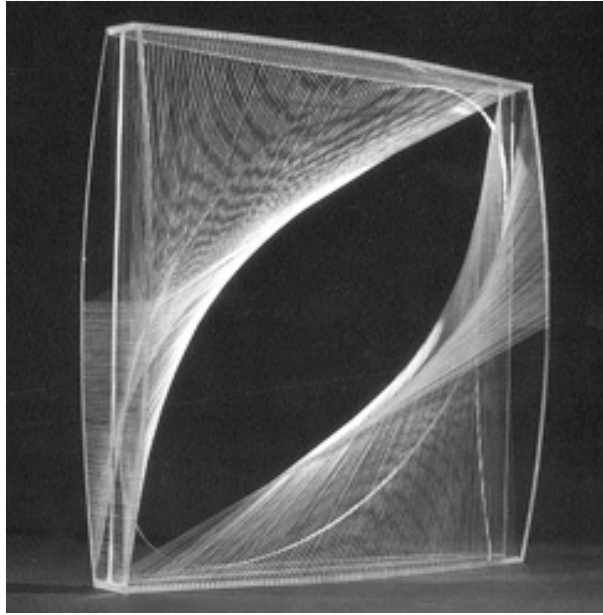


그림 4) Linear Construction in Space No. 1 (Var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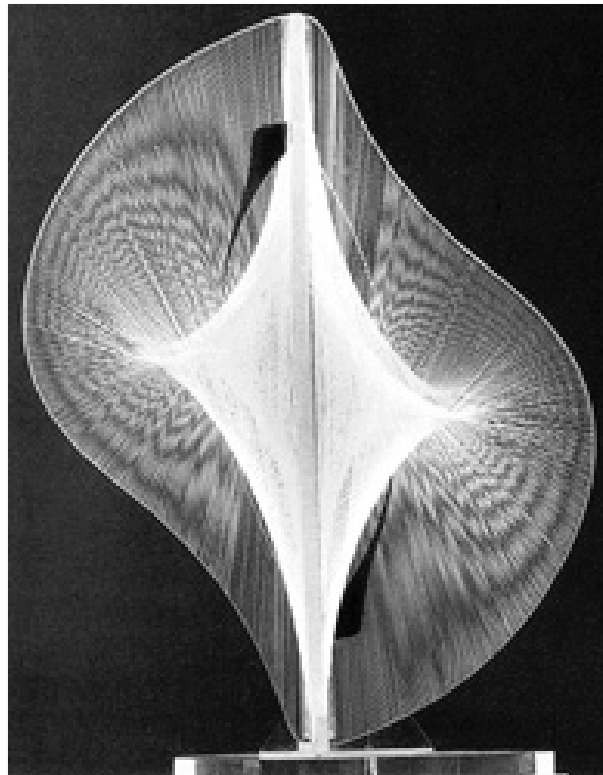


그림 5) Sculpture - Linear Construction in Space No. 2

가보의 디자인의 주요요점은 큰 덩어리 없이 표현가능한 공간의 묘사이다. 그의 초기작은 그의 전형적인
실험물이다. 가보의 또 다른 작업은 리얼리스트 선인과 관련이 있다. 시공간을 포함하여 4 차원에서
확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소재로 다이나믹한 공간을 구성한 그의 작품은 20 세기의 조형
가운데 중요한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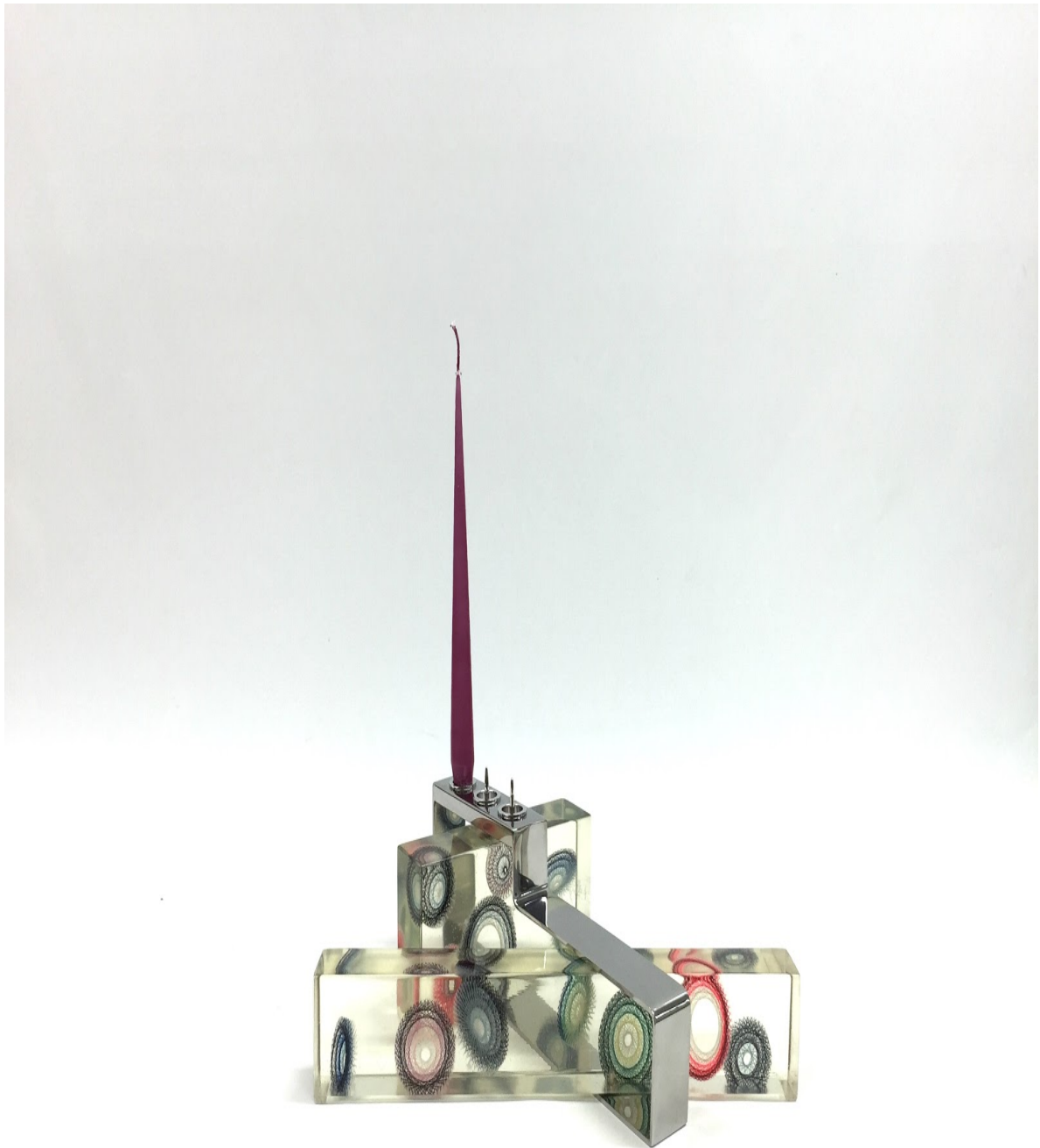
3. 인접성



작업 1) 일다 1



작업 2) 일터 3



작업 3) 조각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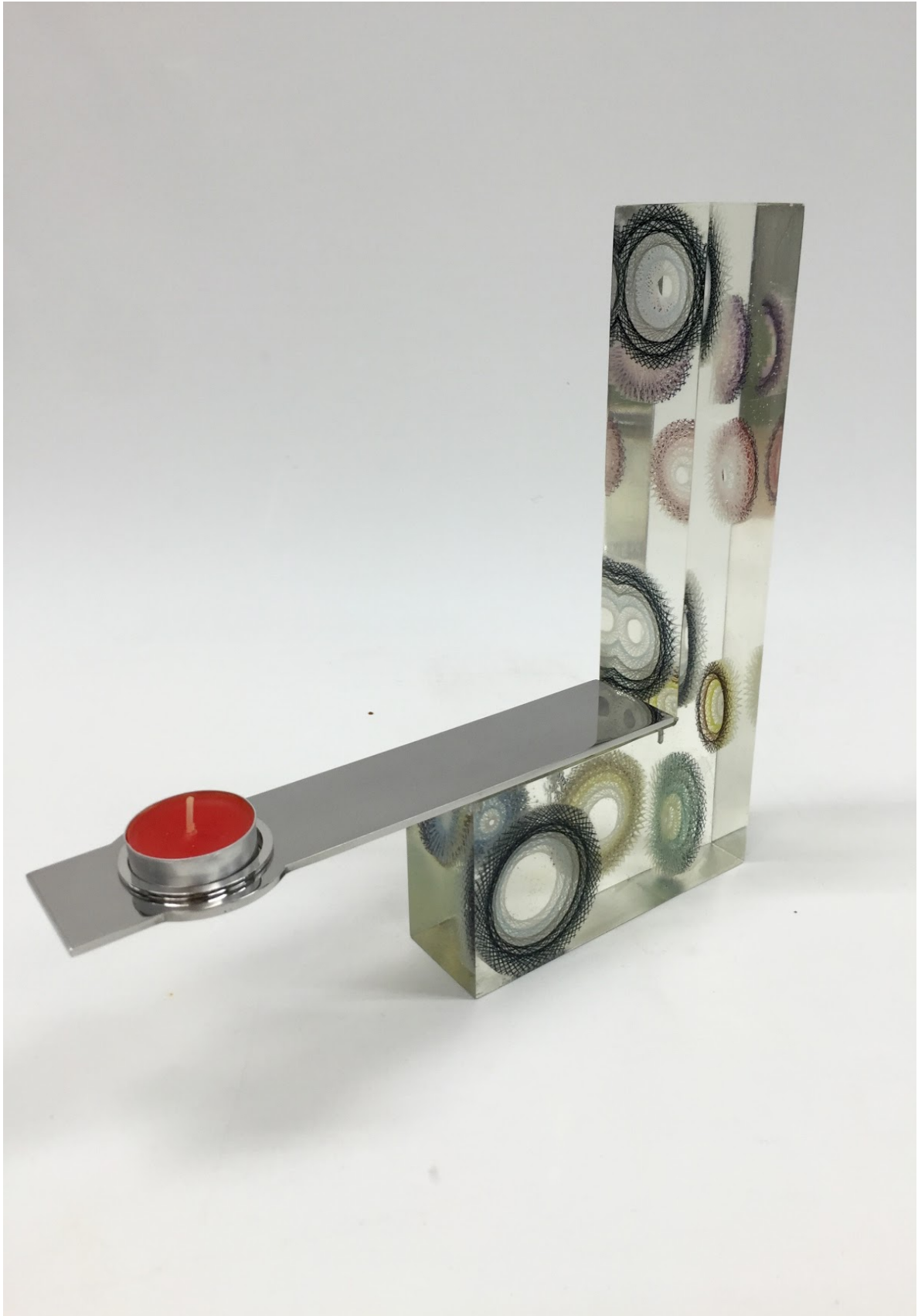


사진 4) 빛속도 측정

빛이 수용

수지로 실을 가두어 직선아트와 고정점을 제거함으로써 빛이 번어나고 시각적으로 더욱 흥미로워진다. 우레아 수지의 유동성이 있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직선 아트에서 보지 못한 입체감을 표현했다. 빛깔의 명도를 다르게 걸쳐지며 원근감을 더욱 나타내고 다양한 색을 걸쳐 색이 섞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킨다. 층이 있는 작업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온전한 모습은 볼 수 없다.